

# 6·25전쟁 시 북한의 남침 억제실패 원인에 대한 연구

- 6·25전쟁 이전(1948~1950년) 남북한의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

김 대 성\*

1. 서 론
2. 군사전략과 전쟁억제의 상관관계
3. 북한의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과 공격계획
4. 남한의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과 방어계획
5. 결 론

## 1. 서 론

2012년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2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휴전으로 끝난 전쟁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의 상태로 남아있으며, 2010년의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에 대한 철저한 군사대비태세의 확립은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우선과제라고 할 수

---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박사과정

있다. 최근 국방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대한 고찰과 반성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통해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군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2015년 전시작전권 인수를 통해 1950년 이후 62년간 가지지 못했던 독자적인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게 될 지금의 시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있던 건군초기(1948)부터 6·25전쟁 이전(1950)까지의 시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독자적으로 군사전략을 수립 및 시행하였던 시기로서 남한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할 수 없었던 원인을 군사전략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6·25전쟁의 원인은 주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다.<sup>1)</sup>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전쟁의 정치적 원인은 무엇이며,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반면에 군사적 차원, 특히 군사전략의 측면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못했다.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전쟁의 원인은 정치적 동기를 떠나서 논의될 수 없지만,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적 측면의 원인들 외에도 군사적 측면의 원인도 매우 중요하다. 특정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승리의 가능성”이 없이는

1) 6·25전쟁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미국과 소련간의 국제적 대립과 냉전의 시작이라는 국제정치적 관점과 6·25전쟁이 이전 남북한의 극심한 이념적 갈등과 38도선에서의 충돌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국내정치적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의 연구들(2005년 이후)을 살펴보면 국제정치적 관점에는 정병준, 『한국전쟁: 38도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국내정치적 관점에는 Allan R. Millett, *The War of Korea, 1945~1950 : A House Burning* (Lawrence, Kansas: University of Kansas, 2005); Bruce Cumings, *The Korean War* (New York: Random House, 2010) 등이 있다.

아무리 매력적인 정치적 동기가 있더라도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sup>2)</sup>

승리의 가능성은 피·아간의 군사전략을 통해서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계산을 기초로 하여 공자는 실제로 공격을 실행에 옮기기 때문이다.

물론, 6·25전쟁 전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서 열세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단지 병력이나 무기의 수가 상대방에 비해서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공자는 방자에 비해 많은 불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공자의 승리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 즉, 방자의 군사전략이 효율적이라면 공자에 비해 전력이 열세하다고 하더라도 공자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50년 6월 25일에 남한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지 못한 이유를 군사전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자와 방자의 군사전략적 유·불리점을 살펴보고 군사전략과 전쟁억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6·25전쟁 전 남북한의 군사력 건설과 군사전략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군사전략의 측면에서 남한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2015년 이후 독자적인 전·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한국군에 주는 교훈과 함의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2) 레비, 메스키타, 블레이니의 연구들은 승리가능성이 전쟁의 발발에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하고 있다. Jack S. Levy, "Misperception and the Cause of War : Theoretical Linkages and Analytical Problems," *World Politics*, 36:1(October 1983), pp.83~84; Bruce Bueno de Mesquita, "The Contribution of Expected Utility Theory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nflict," eds. Rotberg and Theodore K. Rabb, *The Origin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58~70; Geoffrey Blainey, *The Causes of War*(New York: The Free Press, 1988), pp.120~124.

## 2. 군사전략과 전쟁억제의 상관관계

### 1) 공자와 방자의 군사전략적 유·불리점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만 느껴져서 질문의 의도조차 의심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공자와 방자의 군사전략적 유·불리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면 그 해답은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군사력의 격차이다. 강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는 약한 국가보다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많은 역사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강자가 승리하지는 못했다. 나폴레옹은 상대보다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미국은 당시 세계초강대국이었던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여 독립을 쟁취했다.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초강대국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물론, 위에 언급한 전쟁들에서 약자의 승리원인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군사 등 여러 가지 원인의 복합적인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군사적 충돌의 결과이다. 따라서 약자가 강자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적으로 강자에게는 제약요소가 약자에게는 유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쟁에는 공자와 방자가 있기 마련이며, 일반적으로 강자는 공격을, 약자는 방어를 하게 된다. 따라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승리는 ‘방어의 강함’과 ‘공격이 갖는 한계’로 가능하며, 이것이 강자가 약자에게 패배하는 전략의 역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첫째, 방어는 공격보다 강한 형태의 전쟁이기 때문이다.<sup>3)</sup> 공자는 적의 영토를 탈취하거나 적 부대를 격멸한다는 “적극적 목표(positive aim)”를 추구하는 반면, 방자는 자신의 영토와 병력을 보존한다는 “소극적 목표

3)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s. and trans. Michea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358.

(negative aim)”를 추구한다. 적극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 즉 방어준비가 되어 있는 적의 영토를 빼앗거나 적의 병력을 격멸하는 것은 방어보다 더 많은 노력과 손실을 필요로 한다.

둘째, 방자는 진지와 지형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sup>4)</sup> 방자는 자국의 영토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여 방어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또한, 내선작전<sup>5)</sup>의 이점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병력의 보충과 물자의 보급을 수행할 수 있어 공자보다 장기적인 작전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방자는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전투원의 사기 측면에서 우월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공자의 전투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한다. 전쟁초기 공자는 전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자는 방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하며, 전쟁의 개시시간, 장소를 결정하여 적의 취약한 곳에 전투력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리가 계속 될수록 공자의 군대는 자국의 영토와 전방기지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며, 신장된 병참선을 통해 보급품을 충당해야 한다. 또한 신장된 병참선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할당해야 한다. 또한 점령지역의 통제에도 많은 병력이 소모된다.<sup>6)</sup> 이로 인해 공자의 전투력은 감소하게 되고, 어느 시점에 공격은 정점(culminating point)에 도달하게 된다.<sup>7)</sup>

넷째, 방자는 방어와 공격이 갖는 이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sup>8)</sup> 공자가 최초의 군사적 성공으로 공격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면 방자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공자에게 퇴로를 차단당해, 포위격멸을 당하지만 않는다면, 방자는 후퇴하면서도 방어와 공격의 이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공자

4) Carl von Clausewitz, *On War*, pp.357~366, pp.566~573.

5) 작전선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는 Baron de Jomini, *The Art of War*, trans G. H. Mendell and W. P. Craighil.(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77)를 참조.

6) 에드워드 루트와 저, 이동욱 역, 『전략: 전쟁과 평화의 논리』,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0, 30쪽.

7) Carl von Clausewitz, *On War*, pp.327~328.

8) Baron de Jomini, *The Art of War*, pp.73~74; 에드워드 루트와, 『전략: 전쟁과 평화의 논리』, 31쪽.

의 재공격 준비기간 동안 방자는 유리한 지형을 선택하여 방어준비를 하고, 공격해 오는 노출된 적 부대에 대하여 공격할 수 있다. 즉,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적 부대를 공격할 수 있다.

다섯째, 방자는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함으로써 공자의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공자에게 있어 시간의 경과를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취약성을 노출시키며,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감소한다.<sup>9)</sup> 따라서 공자는 ‘신속한 승리’를 추구할 것이다.<sup>10)</sup> 그러나, 방자는 일반적으로 진지와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공자가 추구하는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하면서 전쟁을 지연전의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공자의 전투력 소모를 유도할 수 있다.<sup>11)</sup>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전쟁에서 강자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약자도 승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방어의 강함’과 ‘공격이 갖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분명한 것은 방자가 공자에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자는 방자에 비해 3배 이상의 군사력을 보유해야 전쟁에서 승리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sup>12)</sup>

9)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전쟁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공격하는 국가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은 감소한다. Zeev Maoz, *Paradoxs of War* (Boston: Unwin Hyman, 1990), p.145.

10) Baron de Jomini, *The Art of War*, p.73.

11)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맥락에서 방어의 특성을 “기다리는 것”(waiting)이라고 말하고 있다. Carl von Clausewitz, *On War*, p.357.

1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ean M. Lynn-Johns, “Offense-Defense Theory and its Critics,” *Security Studies*, 4:4(Summer 1995); Charls L. Glaser, “What is the Offense-Defense Balance and Can We Measure It?” *International Security*, 22:4(Spring 1998)를 참고.

## 2) 군사전략과 전쟁억제

### (1) 군사전략

고대에서 근대초기에 이르기까지 전략이라는 용어는 주로 전쟁에 국한되어 사용되어왔다. 이처럼 나폴레옹 시대이전까지 주로 전쟁에 국한되어 사용되었던 전략의 개념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sup>13)</sup> 이에 따라 전략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분화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군사전략은 국가전략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군사전략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이러한 정의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즉, 군사전략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군사전략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목표, 수단, 방법의 3가지로 볼 수 있다. 추구하는 목표(objectives)가 있고, 이를 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한 수단(means), 그리고 가용한 수단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ways)이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sup>15)</sup>

군사전략은 군사력의 사용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사전략의 목표는 군사력의 사용과 관련하여 크게 공격, 방어, 억제의 3가지로 볼 수 있다.<sup>16)</sup> 군사력을 통해 세부적으로 어떤 목적을 추구하던 간에 그 목적은

13) 전략의 개념과 범위의 확대와 변화에 관해서는 Julian Lider, “Problems of Strategic Studies,” *Military Theory: Concept, Structure, Problems*(Aldershot: Gower House, 1983), pp.193~195를 참고.

14) Alan Stephens and Nicola Baker, *Making Sense of War: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1~10.

15) Arthur F. Lykke, Jr., “Towards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Carlisle Barracks, PA: Department of Military Strategy, Planning, and Operation, U.S. Army War College, 1982), p.1.

16) 포젠은 군사력을 사용하는 군사독트린에는 공격, 방어, 억제의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Barry R. Posen,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pp.14~17.

크게는 공격이나 방어 또는 억제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전략의 나머지 구성요소인 수단과 방법은 군사력의 건설과 운용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투부대, 무기, 탄약, 장비와 같은 수단은 군사력 건설과 연관되어 있으며, 전쟁계획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수단들의 사용은 군사력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클라우제비츠도 군사전략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전략”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 구분하고 있다.<sup>17)</sup> 간단히 말해서 군사전략의 수단은 국가의 군사력으로, 군사전략의 방법은 군사력의 배치 및 운용과 관련된 전쟁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 (2) 전쟁억제

억제에 관한 이론적 시도는 핵무기가 등장한 이후의 일이나, 억제의 개념과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sup>18)</sup> 억제는 오랫동안 전략과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군사력의 일차적 사용목적은 항상 잠재적 침략자가 아군의 국토나 국가이익에 대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억제에 대해 스나이더(Glen H. Snyder)는 본질적으로 “억제는 군사행동을 취함으로써 얻어지리라고 예상되는 이득보다 손실과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예상케 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군사행동을 단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9)</sup> 또한 하카비(Y. Harkabi)에 의하면, 억제는 보복 또는 응징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up>20)</sup> 왈츠(Kenneth N. Waltz)도 “억제한다는

17) 클라우제비츠는 군사전략을 위의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자신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Carl von Clausewitz, *On War*, pp.127~132.

18) Alexander L. George and Richard Smoke,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pp.12~21.

19) Glen H. Snyder, *Deterrence and Defenc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p.3.

20) Y. Harkabi, *Nuclear War and Nuclear Peace*(Jerusalem: Israel Program for Scientific Translation, 1996), pp.1~3.

것은 상대방을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억제는 한 국가를 위협하여 공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작동한다. 적으로부터 예상되는 반응이 그 자신의 막심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억제위협이 비효과적이라면 군사적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sup>21)</sup>

위에서 살펴본 억제의 정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억제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수반하는 위험 또는 손해가 그 행동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믿도록 상대방을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군사전략과 전쟁억제의 상관관계

군사전략과 전쟁억제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전략은 역설적인 논리가 지배한다.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판단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며, 실수라고 생각했던 판단이 최상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서, 특정부대가 부대이동 중에 갈림길에 도달하였다. 2개의 갈림길 중 1개는 넓고, 곧고, 포장되어 이동이 양호한 반면 나머지 1개는 좁고, 구불구불하며, 비포장으로 이동하기에 불리하다. 평시라면 양호한 도로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전시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적이 양호한 도로에 매복할 수도 있으며, 매복을 예상할 것을 대비해 불량한 도로에 매복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를 택하든지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자신의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최악의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의도를 방해하기 위해 살아 움직이는 상대가 자신의 무기와 지능을 사용하여 대응하기 때문이다.<sup>22)</sup>

21) Robert J. Art and Kenneth N. Waltz, "Technology, Strategy and the Use of Force," in R. J. Art and K. N. Waltz, *The Use of Force*(Boston: Little Brown, 1971), p.10.

22) 에드워드 루트와, 『전략: 전쟁과 평화의 논리』, 14쪽.

이러한 전략의 역설적인 논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프랑스의 전략가 보프르(Andere Beaufre)가 내린 전략의 정의이다. 그는 “전략이란 상충하는 목적과 의지를 가진 국가들 간에 일어나는 작용과 반작용, 즉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변증법적 술이다.”<sup>23)</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공자와 방자 간에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작용과 반작용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전쟁이 개시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준비 단계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군사전략과 전쟁억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핵심이 있다. 공자가 방자를 공격하기로 목표를 세웠다면, 공자는 방자의 군사력 규모, 배치, 작전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하고 효율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사력 운용에 대한 방법을 구체화한다. 즉, 방자를 이길 수 있는 군사전략을 구상한다. 반면에 방자도 공자의 의도를 인지하면, 마찬가지로 공자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자를 이길 수 있는 군사전략을 구상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공자와 방자가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한 끊임 없이 계속된다. 이러한 상태는 공자가 방자에 대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억제 논리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예상되는 이득(전쟁의 승리)보다 예상되는 비용(전쟁의 패배)이 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자는 전쟁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공자는 방자에 비해서 많은 점에서 불리하며, 따라서 방자에 비해서 월등한 군사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자가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억제가 붕괴되는 시점은 공자가 방자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과 일치한다. 즉, 전쟁은 공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시작된다. 따라서 전쟁의 억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군사전략, 즉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군사력을 어떻게 건설하고 운용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3) Andere Beaufre, *An Introduction to Strategy*(London : Faber and Faver, 1965), p.22.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이러한 군사전략과 억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sup>24)</sup> 그는 역사적으로 단기전은 장기전보다 일반적으로 비용이 낮기 때문에 더 선호되며, 따라서 전쟁은 잠재적 공자가 신속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일반적으로 선택 가능한 전략은 크게 전격전 전략, 소모전략, 제한 목표전략의 3가지가 있으며, 잠재적인 공자는 신속한 승리가 가능한 전격전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자는 잠재적 공자의 비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모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전격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어형태가 중요한데, 고정방어나 전방방어의 형태보다는 기동방어나 중심방어의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공자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강요하는 군사전략을 채택하여 승리의 가능성을 줄이고 예상되는 비용(손실)을 극대함으로써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6·25전쟁 전 남북한 군사전략, 수단의 측면에 해당되는 군사력 건설과 방법의 측면에 해당되는 작전계획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4) 전격전 전략은 2차대전시 독일의 전격전과 같이 방자의 방어전면을 뚫고 방자의 후방 깊이 기동하여 적의 핵심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것이며, 소모전략은 상대방에게 일련의 계획된 전투를 강요함으로써 공자의 손실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제한목표전략은 기습공격으로 제한된 목표를 탈취하고 신속히 방어로 전환하여 변화된 상태를 고착시키는 전략이다. John Mearsheimer, *Conventional Deterr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p.23~66.

### 3. 북한의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과 공격계획

#### 1) 김일성의 ‘국토완정론(國土完整論)’ 과 북한의 남침결정

1948년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 김일성은 평화적 방법보다는 군사적 수단에 의해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결심하고 있었다. 이러한 김일성의 의도는 ‘국토완정론’ 으로 나타났다.<sup>25)</sup> 이러한 ‘국토완정론’ 은 1949년 신년사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그 동안 북한에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는데 주력했던 북한이 남한까지 포함하는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목표로 방향을 전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9년 여름까지 한국군은 북한군보다 아직까지 절대적인 병력수에서 우위에 있었다.<sup>26)</sup> 이러한 그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력통일을 위한 군사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소련과 중국의 무력통일 승인과 군사적 지원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과 소련의 지원 하에 북한의 군사력은 1949년 8월을 넘어서면서 한국을 앞서가기 시작하였다.<sup>27)</sup> 이 무렵부터 김일성은 보다 적극적으로 남침의지를 피력하기 시작했다. 우선 1949년 8~9월 사이에 4차레이상 웅진반도의 부분점령과 추가진격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sup>28)</sup> 전선을 120km 단축할 수 있으며, 국군의 전력과 사기를 판단하여 가용 시 남침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단기간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하나 북한의 능력이 아직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소련의 평가와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sup>29)</sup>

25) ‘국토완정론’ 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나남, 1996, 제2장.

26)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276~290쪽, 305~333쪽.

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①: 전쟁의 배경과 원인』, 591~592쪽.

28) 대한민국 외교부(역), 『러시아 비밀외교문서집』 제3권(1996), 31쪽(이하 『러시아외교문서』로 줄임); 『툰킨의 보고』(1949. 9. 12), 『러시아외교문서』 제3권, 32쪽.

29)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9월 24일 북한의 남침계획을 반대했다. 그 이유는 ① 군사적으로 북한이 공격에 필요한 2~3배의 우월한 군사력 미보유, ② 남한 인민봉기

하지만 소련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1950년 1월 12일에는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는 등, 1949년 말부터 국제정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북한의 남한 침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련의 정책변화는 김일성의 방문의사 수락, 무기지원 요구수락, 51년도 차관예산의 50년 전용 동의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sup>30)</sup>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스탈린과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3차례 회담을 통해 남침을 결정하였는데, 스탈린의 미국 개입가능성에 대해 김일성은 국제정세 상 미국은 불개입할 것이며, 개입하더라도 대남공격이 3일 이내에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이 종결될 것이라고 스탈린을 설득하였다.<sup>31)</sup> 이후 김일성은 5월에는 모택동으로부터 남침에 대한 승인을 얻어냈다.<sup>32)</sup> 결국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 2) 북한의 군사력 건설

북한의 군사력 건설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군을 완료한 1948년 12월 중순, 모스크바에서 소련, 중국, 북한의 군사대표가 참석한 회담에서 18개월 내에 북한군을 남한 공격에 충분하도록 증강시킨다는 목표에 합의했다.<sup>33)</sup> 구체적으로 ① 6개 보병사단을 돌격사단으로 개편, ② 돌격사단 편성을 위해 중공은 한인계 중공군 20,000~25,000명을 입북시켜 인민군의 기간요원으로 제공 ③ 돌격사단 외 8개

의 준비 미흡, ③ 미국의 개입가능성이었다.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툰킨』(1949. 9. 24), 『러시아외교문서』 제3권, 49~51쪽.

30) 1949년 말부터 1950년 초 사이의 소련의 이러한 인식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33~152쪽.

31)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8, 52~53쪽.

32)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김일성에게 남침을 승인했는지 확인하고 스탈린의 중국과 북한과의 합의가 개전에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비신스키→모택동』(1949. 9. 24), 『러시아외교문서』 제3권, 72쪽.

33)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87쪽.

전투사단과 8개 예비사단을 편성 ④ 기갑부대는 소련이 제공하는 500대의 전차로 2개의 기갑사단을 편성 ⑤ 공군은 국제적인 문제를 고려 필요시까지 보류 등이다. 이러한 합의는 1949년 1월에 가진 소련군사절단과 북한과의 회의에서 항공기 150여대를 추가공급하고 전차는 지형을 고려하여 1개 사단을 축소 조정하는데 합의하게 된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북한의 군사력 건설은 착실하게 이루어지는데, 우선 1949년 4월 조·중(朝·中)회담에 따라 중공군 제166사단, 제164사단과 중공군 독립 제15사단과 중국 각지의 조선의용군 약 50,000명이 1949년 7월부터 1950년 5월까지 북한지역으로 입북하여 북한군의 정규사단으로 개편되었다.<sup>34)</sup>

1949년 7월말 중공군 제4야전군 제166사단은 신의주로 입북해 인민군 제6사단(사단장 방호산)으로 개편되었으며, 제4야전군 제164사단은 8월말 나남에 들어와 인민군 제5사단(사단장 김창덕)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1949년 말까지 제4독립혼성여단을 제4사단으로 완편하여 1949년 말에 북한군은 중국에서 입북한 2개 사단을 포함하여 총 6개사단으로 증편되었다. 또한 1950년 5월 초 중공군 중남군구 독립 제15사가 원산으로 입북해 인민군 제12사단(사단장 전우)으로 개편되고, 중공군 제4야전군 제47군한인독립단은 제18연대, 중공군 139, 140, 141사단에 소속되었던 한인 총 5,400명이 기계화 연대로 각각 개편되었다.

이렇게 입북한 중공군 한인사단들은 소련군의 무기지원을 통해 정규사단으로 탈바꿈되었다.<sup>35)</sup> 1949년 3월 소련과 북한은 1949년 6월~1952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약 2억 루블(4,000만 달러)의 차관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5월 1일, 북한은 제1차년도 분으로 소총, 전차, 야포 등 지상장비와 함정, 항공기, 탄약, 무전기 등 각종 전쟁물자 110여 종을 소련에 요청하여 승인받고, 1949년 말까지 소총 15,000정, 각종 포 139문,

3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①: 전쟁의 배경과 원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273~277쪽.

3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87~88쪽.

T-34전차 87대, 항공기 98대 등 많은 장비를 인도받았다.

이러한 장비의 도입은 1950년 4월 김일성의 모스크바 비밀방문을 계기로 급진전되어 T-34 전차, SU-76 자주포, 박격포, 곡사포, 고사포, 각종 통신 장비와 도하장비, 공병장비, 탄약 등 각종 전쟁물자가 대대적으로 지원되었다.<sup>36)</sup> 이때 도입된 장비로 중공군 독립 제15사가 제12사단으로 개편되고, 3개의 민청훈련소를 기반으로 하여 3개 사단(제10, 13, 15사단)과 독립전차연대를 추가로 창설하였다.

해군과 공군도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전력증강이 이루어졌다.<sup>37)</sup> 해군은 소련의 지원으로 3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진·원산·진남포 위수 사령부에 대대규모의 육전대를 편성하였으며, 남침 직전에는 상륙작전에 투입할 제549부대를 창설하였다. 공군은 1949년 3월 IL-10, YAK-9 등 프로펠러식 전투기 30대를 도입하고, 1950년 4월에는 다시 60대의 IL-10, YAK-9 등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남침직전 IL-10 60대를 추가 지원받아 총 21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력 건설과정에서 특히, 전차부대의 창설과 확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sup>38)</sup> 1948년 제105전차대대 1개 대대에 불과했던 북한의 기갑전력은 1949년 5월에는 소련의 추가적인 지원으로 제105전차여단(여단장 유경수)로 증편되어 3개의 전차연대, 1개의 기동화연대, 1개의 자주포대대로 구성된, 120대의 전차와 병력 6,000명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1950년 4월말 소련에서 추가적으로 장비가 도입되면서 제105전차 여단은 8,800명의 병력과 T-34 전차 258대, 싸마호트 장갑차 154대, 모터사이클 560대, 트럭 380대 등 막강한 병력과 장비를 보유한 부대로 탈바꿈했다.

북한군은 전력증가와 함께 효과적인 전투력 발휘를 위한 훈련도 병행하여

3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上)』, 국방군사연구소, 1995, 31쪽.

37)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88~89쪽.

38) 소련은 특히, 북한 기갑부대의 창설과 훈련에 많은 관심을 쏟았는데, 일례로 북한군 건설을 지도하기 위해 1949년 1월 평양에 도착한 소련군군사사절단의 장군5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갑전문가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①: 전쟁의 배경과 원인』, 280~286쪽.

실시했다.<sup>39)</sup> 1949년 전반까지 사단급의 자체훈련을 완료하고 후반부터는 사단단위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하면서 공격작전능력을 평가하고 보완해 나갔다. 같은 해 7월에는 보병과 포병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사단 및 군단급 지휘소 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1950년 2월에는 공병부대의 진지돌파 특수훈련 및 도하작전훈련과 보병사단과 전차부대가 참가한 제병합동훈련이 실시되었다.

### 3) 북한의 남침공격계획 수립

남침이 결정됨에 따라 소련의 북한 군사원조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기민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미 남침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인 1950년 2월 23일에 작전전문가로 전투경험이 풍부한 바실리에프(Vassilyev) 중장이 새로운 북한군 수석군사고문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쟁계획의 수립과 북한군 운용을 위해 투입된 것이었다.<sup>40)</sup>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련과 북한이 남침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미국의 개입가능성이었다. 따라서 소련과 북한은 미군의 개입 가능성이 최소화되는 시점에 남침을 개시함으로써 미군의 개입가능성을 줄이고, 미군이 개입할 경우에도 이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남한 전 지역을 석권하고자 하였다. 소련과 북한에게 있어 단기전의 성공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였던 것이다. 따라서 남침공격계획도 전격전에 의한 단기전에 목표를 두고 수립되었다.

스탈린의 최초 작전구상에서 핵심은 “적이 제정신 차릴 틈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전격전”이었다. 전격전은 초전 3일 이내 전차가 주축이 된 기계화부대로 적의 제1선을 급속히 돌파하여 후방으로 진격해 적을 양단시켜

39)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88~89쪽;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한국학술정보, 2007, 221~222쪽.

40) 『스티코프→바실리에프』(1950. 2. 23), 『러시아외교문서』 제3권, 48쪽; 『스티코프→스탈린』(1950. 7. 4), 『러시아외교문서』 제3권, 76~78쪽; 『김일성→스탈린』(1950. 7. 8), 『러시아외교문서』 제4권, 50쪽.

적의 전력 대부분을 궤멸시킬 정도로 화력과 기동력, 파괴력을 일시에 조직적으로 폭발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전차나 야포, 공군이 잘 무장되고 압도적 우세와 더불어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을 고도로 세밀한 초기 공격 세부계획이 필수적이었다.<sup>41)</sup>

이렇게 수립된 북한의 남침 기본개념은 1950년 6월 말에 전면 공격으로 전쟁 개시 2일차에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남한을 전복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은 신속히 남해안까지 전개하여 미 증원군과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하고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sup>42)</sup>

세부적으로 남침계획은 전투력을 금천-구화리, 연천-철원, 화천-양구 지역에 집중하여 공격작전을 전개함으로써 2일내에 서울 부근의 국군주력부대를 포위섬멸하는 것이었다. 그 후 전과를 확대하여 남해안까지 진출한다는 개념 하에 3단계로 수립되었다.<sup>43)</sup>

제1단계는 최초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후 서울지역에서 국군의 주력을 포위 격멸하는 단계로서 전쟁 개시 2일차에 서울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때 작전중심은 38도선으로부터 수원-원주-삼척을 연하는 선까지 약 90km로 이를 5일 만에 수행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는 국군 증원 병력을 격멸하고 전과를 확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군의 작전중심은 군산-대구-포항을 연하는 선까지 약 180km로 이를 14일 만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대편성이나 운용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제3단계는 국군의 잔존병력을 소탕한 후 신속히 남해안으로 진출하여 주요 항구를 점령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군은 부산-여수-목포를 연하는 선까지의 작전중심 80km를 10여일 만에 완료하도록

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군사편찬연구소, 2001, 422쪽.

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인민군공격작전의 정보계획』 (북한인민군총사령부, 1950. 6.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군인공제회, 2001, 135~137쪽.

4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136~137쪽.

하였다. 이 단계의 작전목적은 미군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만약 미군의 증원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하여 남해안의 주요항구를 신속히 점령하여 미군이 한반도에 교두보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 단계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작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북한의 남침공격계획은 38도선으로부터 남해안까지의 작전중심 350km를 3단계로 구분하여 한 달 만에 완료하는 것이었고, 작전의 핵심은 국군의 주력을 섬멸하고 서울을 점령하는 1단계작전에 있었다. 이는 2,3단계의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남침 시 전격전 전략을 채택하여 최단시간 내에 군사적 승리를 달성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 4) 군사전략 평가

북한의 6·25전쟁 전 군사전략은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공격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다. 방자가 갖는 여러 가지 강점 때문에 공자는 방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 보다 압도적 군사력(최소한 2배, 가능 시 3배 이상)을 보유하는 것은 승리의 기본요건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고, 여기에 중국과 소련의 동조가 더해져 남한 대비 월등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쟁 개시 직전에 병력면에서는 2:1, 전투장비(전차, 야포, 항공기)면에서는 3:1 이상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방어진지를 신속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전차와 항공기 등의 전력을 집중적으로 확보하였다.

또한 2일 이내에 한강선 이북에서 한국군 주력을 격멸하고 수도 서울을 확보하여 적의 중심을 격파하는 결정적인 전투를 수행하려고 시도하였다.

둘째, 군사전략의 제요소인 목표-수단-방법이 일치되었다는 것이다. 남한의 무력통일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수단인 군사력 증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으며, 미군의 개입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 전격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단기 전격전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전차, 장갑차, 자주포, 항공기)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군사전략의 제요소들이 일치됨으로서 북한의 전격전에 의한 남한 무력통일전략은 초전에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공자에게 가장 타당한 전격전 전략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단기전 추구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격전 전략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전격전 전략을 통해 신속하게 한국군을 돌파하여 후방을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남침 시 예상되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북한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게 된 군사전략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4. 남한의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과 방어계획

### 1)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대미 갈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북한의 위협이었다. 따라서 남한에 있어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의 증강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서 남한 역시 적극적으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였다. 군수산업 기반이 전무했던 남한은 군사력 건설에 있어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이승만은 조병옥 박사를 한국의 공식적인 대표자로 트루먼 대통령에게 소개하고, 주미한국대사로 장면박사를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대미외교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sup>44)</sup>

44) "Letter to the President Truman," 1948.9.8., 471(1945~48), box 1304, Papers:

하지만, 당시 미국에게 남한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였다. 군사전략적으로는 미군이 주둔하게 적합하지 않으며, 소련의 침공 시 방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단지 일본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공산주의와 직접 접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의 위신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평가되고 있었다.<sup>45)</sup>

또한, 남한의 군사력 건설을 방해한 것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투철한 반공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을 공산당에 의해 점령당한 영토를 되찾는다는 '실지회복'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북진통일'을 주장하였다.<sup>46)</sup> 이러한 '북진통일론'을 통해서 이승만은 남한 내부통합 및 체제안정, 미국의 지원 확보, 북한의 침략 억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sup>47)</sup>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이승만의 호전적인 대북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은 남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군사지원도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내부치안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sup>48)</sup>

따라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50년 초반에 이르러 한국의 군사력 건설은 북한의 수준을 쫓아가지 못했으며, 북한의 후방지역 게릴라 침투 등으로 그나마 건설된 군사력도 전방에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었다. 이러한 군사전략적 취약성의 노출은 북한으로 하여금 단기전에 의한 승리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으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 개시된 군사전략 측면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The Remarks of the Newly Appointed Ambassador of Korea, Dr. John M. Chang." Undated, 471(1949-50), box 1304, Papers of Harry S. Truman, Official file, HSTL.

45) 1946년 작성된 대소전쟁계획인 윈서(PINCER)계획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지중해 지역을 포함하여 한국도 전쟁 초기 단계에서 포기될 정도로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다. 이철순, "한국전쟁 이전 미국의 한국의 가치에 대한 평가,"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2003).

46) 이승만의 반공이념 형성과 '북진통일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홍용표,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이승만의 반공노선," 『세계정치』 제28집 2호(2007).

47)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611~612쪽.

48) 위의 글, 535~536쪽.

## 2) 남한의 군사력 건설

1948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대한민국으로 군의 통수권이 이양되고, 이어 1949년 9월 1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었다. 당시 육군은 보병 5개 여단(15개 연대)과 지원부대로 구성되어 총 50,490명이었다.<sup>49)</sup>

이후 육군은 육군본부의 편제가 완성되고 군 수뇌부 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군사력 증강을 위해 연대의 증편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여단체제를 확대하여 사단체제로 전환해 나갔다. 1948년 10월부터 1949년 1월까지 육군은 보병연대의 증편에 주력하여 6개 보병연대(제16, 17, 18, 19, 20, 21연대)와 기갑연대의 전신인 육군특별부대수색단을 비롯하여 6개 특수부대를 증설하였다. 이를 통해 1949년 1월 7여단을 창설함으로써 6개 여단 20개 연대로 증편되었다. 예하 여단을 지원하는 부대편성도 급진전 되어 1949년 5월 12일에는 『국군조직법』에 의거하여 각 여단이 사단으로 승격되었고, 6월 20일에는 제8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를 추가로 창설하여 육군은 전쟁 직전 총 8개 사단, 22개 연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sup>50)</sup>

또한 육군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예비병력 확보를 위해 1948년 11월 20일 긴급대통령령으로 호국군 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공포하여 육군호국군을 창설하였다. 이를 통해 제4, 9, 12연대를 제외한 제1연대~제13연대는 호국군을 편제하여 그해 연말에 편성을 완료, 1949년 1월 10일 호국군은 총 10개 연대에 약 20,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호국군은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1949년 8월 31일 해체되었다. 호국군이 해체되고 병역법 77조에 의거 1949년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청년방위대가 설치되었다. 청년방위대는 1949년 11월 초부터 1950년 4월까지 조직편성을 완료하였으나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훈련도

49) 국방부, 『국방사』 1, 국방부, 1984, 229~230쪽.

50)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3집, 서울: 육군본부, 1970, 63쪽.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분산되었다.<sup>51)</sup>

이러한 병력의 증가에 따라 국군은 지속적으로 장비와 물자의 부족현상에 시달렸다. 주한미군은 철수하면서 대한군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약 6만 5천명 선의 장비와 물자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5천 6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규모였다. 하지만 M-2 105mm 곡사포, 57mm 및 75mm 무반동총과 같은 신형무기는 제공되지 못하고 M-3형 105mm 고사포와 57mm 및 37mm 전차포 등 구식장비가 대부분이었다.<sup>52)</sup>

이는 당시 미국의 군원정책이 한국군을 대내적인 소요사태 진압과 38도선 경비임무에 족할 정도로 육성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었다.<sup>53)</sup> 따라서 미군의 철수가 종결된 1949년 7월 이후, 지상군의 병력은 1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미국측의 장비지원 기준은 6만 5천명 선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한 장비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해군과 공군도 부족한 지원 속에서 전력증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sup>54)</sup> 해군은 1949년 초부터 부대개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94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군본부 예하에 진해통제부대를 비롯하여 인천, 목포, 목호 경비부와 부산, 군산, 포항기지를 건설하였고 제1, 2, 3정대와 훈련정대를 편성하였다. 해군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함정이 대부분 소해정이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여 1949년 10월 17일 백두산호(PC-701)를 도입하였다.

공군도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49년 10월 1일 공군본부를 창설하고 본격적인 전력증강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미국의 공군력 증강에 대한 반대로 예산부족으로 인해 캐나다에서 수입한 T-6 훈련기 10대, L-4와 L-5 연락기 22대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군은 부족한 병력 및 장비에 더하여 심각한 훈련부족에 처해 있었다.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①: 전쟁의 배경과 원인』, 393~398쪽.

52)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96쪽.

53) 『NSC 8』 (1948. 4. 2.), *FRUS* 1948, vol. VI, p.1168.

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①: 전쟁의 배경과 원인』, 379~389쪽.

창군 이래 후방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을 비롯하여 38도선 도발 대응과 인민유격대 토벌 등으로 인해 조직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여유가 없었다. 이에 1950년 1월 육군본부는 교육각서를 하달하고 전부대가 3개월간 분대전술에서 대대전술까지 마치도록 하였다. 하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1950년 3월 14일 다시 교육각서 2호를 재차 하달하였다.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1950년 6월까지 전체 65개 대대 중 25%에 불과한 16개 대대만이 지정된 훈련을 마쳤을 뿐이었다.<sup>55)</sup>

또한 방어 시 지형을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어진지의 건설도 미흡한 상태였다. 1949년 초 38도선 경비임무가 전환될 때, 38도선의 진지는 인원 통제를 위한 경비초소들 뿐이었으며 전술적 목적의 방어진지는 전무한 상태였다. 이후 방어진지 구축을 시작하였으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북한군의 방해로 무장충돌로 번지기 일수였다. 따라서 1950년 6월까지 전방 방어진지의 구축은 북한군의 곡사화기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또한 선방어 편성이어서 중심방어력도 부족하였다. 특히, 주요 접근로상의 대전차 방어대책이 소홀한 편이었다.<sup>56)</sup>

### 3) 남한의 정보판단과 방어계획 수립

1948년 9월 국군으로 정식 출범한 이후 한국군은 38도선 도발과 인민유격대 및 빨치산 토벌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했으며, 또한 군 내부까지 침투한 공산주의 세포조직들에 대한 숙군도 진행해야 했다. 이러한 여건들로 인하여 전력의 극대화나 유사시 전력의 집중적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949년 말의 남한의 대북정보평가는 매우 정확한 것이었다. 1949년 12월 27일 육군본부는 『연말종합정보보고』에서 북한군의 병력과 장비를 평가하고, 1950년 초반 북한에 의해 대대적인 무력

55)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러시아연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 군사편찬연구소, 2009, 93~94쪽.(이하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로 통일)

56)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 91~92쪽.

공세와 체제전복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은 정보보고에 따라 38도선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1950년도 국방예산에 38도선 축성공사비를 책정하였으나 국회에서 삭감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1950년 1월 육군총참모장 대리 신태영은 “북한의 침략 계획이 성숙했다고 믿으며,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하였다.<sup>57)</sup>

특히, 1950년 5월 12일에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 가진 회견에서 설명한 북한의 군사상황은 매우 정확한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6개월 전의 정보관단과 비교하여 북한의 군사력은 병력 80,000명, 곡사포 293문, 자주포 176문, 전차 53대, 비행기 135대 등 병력과 장비가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판단은 개전시의 실제 북한군 규모에 근접한 것이었다.<sup>58)</sup>

이렇게 증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육군본부는 방어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비하게 된다. 그리하여 1950년 3월 25일 국군 방어계획인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를 확정하고 예하부대에 이를 하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1950년 초 육군본부 정보국은 북한의 공격 시 지향된 주공과 조공 방향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① 철원-전곡-의정부 축선, ② 개성축선 ③ 장단-문산 축선의 3가지 안을 고려하였는데 이 중에서 철원-전곡-의정부 축선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육군본부 정보국은 그 어떤 안이 채택되든 북한군 공세의 주 목표는 서울 점령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적은 한강선까지 신속히 남하진출을 기도하며 아군 주력을 서울이북지구에서 포착하여 결전을 강요한 뒤 최단시간 내에 서울을 점령하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적의 의도에 대한 이러한 판단 하에 육군의 방어계획은 서울방어에 집중되었다.<sup>59)</sup>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는 부록까지 구비한 비교적 완벽을 기한 작전

57)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 87~88쪽.

58) 국방군사연구소, 『건국50년사』, 100쪽.

59)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 174~175쪽.

계획이었다.<sup>60)</sup> 우선 적의 주공이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에 지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의정부 지구에 방어중점을 두고 방어진대를 편성하였다. 방어목표는 이 지역으로 공격해 오는 적의 주공을 진지 전방에서 격파하여 38도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38도선 확보를 위한 국군 방어계획의 기본개념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웅진지구의 육군부대는 적의 공격 시 인천으로 철수하는 것이었다. 둘째, 개성지구의 육군부대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설정된 임진강 남안의 방어선으로 철수하고, 기타 다른 부대는 계속 지연전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셋째, 후방지역의 예비사단은 적의 공격 시 역습부대로 운용되도록 계획하였다. 후방지역 경계는 경찰과 청년방위대 등으로 후방경계부대를 편성하여 관할지역내의 해·공군 부대와 협조하여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다.

구체적으로 작전계획을 살펴보면 38도선을 담당하는 전방사단은 적의 공격 시 38도 선상의 경계진지 전투지대, 주저항선 전투지대, 최후저항선 전투지대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전투를 실시하며, 제1단계 경계진지 전투 간에는 38도선 경계진지 선에서 적의 진출을 최대한 지연하는 것으로 주 저항 진지 정면의 교량 및 도로를 파괴하며 주저항선까지 진출하며, 후방예비사단인 제2, 3, 5보병사단은 전방지역으로 집결하고 웅진지역의 17연대와 동해안의 제8보병사단은 견제 및 측방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2단계 주저항선 전투 간에는 주진지선에서 전 화력의 집중 및 철저한 역습으로 가장 강력한 전투를 실시하여 적을 진지 전방에서 격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적이 아군 방어진지에 침투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선에서 적을 고착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전선이 너무 확장될 경우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예비진지 방어선으로 점차 이동하도록 계획하였다.

제3단계 작전인 최후저항선, 즉 예비진지 전투 간에는 전군이 예비진지 방어선에서 전 화력을 집중하고, 역습으로 적의 전력을 철저히 격파하여 이선

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①: 전쟁의 배경과 원인』, 641~648쪽.

을 최후까지 확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작전계획은 당시의 대북정보판단에 기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못했다. 적의 압도적 전력 이 주공방향에 집중될 경우에 계획상의 병력규모로는 효과적인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4) 군사전략 평가

남한의 6·25전쟁 전 군사전략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방자의 유리함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방자는 우선 공자에 비해 수적 적은 병력으로 성공적인 작전이 가용한데, 개전 당시 북한에 비하여 열세였던 것은 분명하나 병력면에서는 2:1로 열세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인민유격대와 빨치산 토벌 등으로 병력이 분산되었고, 오히려 북한의 병력집중으로 2:1의 병력비율은 축선별로 최대 1:4까지 증가되었다.<sup>61)</sup>

또한, 전방 방어진지의 구축도 미흡하여 방자가 갖는 지형 및 진지의 이점을 전혀 살릴 수가 없었다. 또한, 방자는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하여 공자를 공격의 정점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한강 이북에서의 결전을 추구하는 방어계획을 수립하였다. 물론, 수도 서울을 사수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력이 서울을 연하는 선 또는 서울 북방 지역에 배치 되도록 작전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둘째, 군사전략의 제요소인 목표-수단-방법이 일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남한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남한이 필요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미군의 지원의지 결여로 군사력 건설도 많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61)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216쪽.

남한은 전쟁 전까지 북한의 전차, 장갑차, 야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의 침략저지라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아시아지역의 공산주의 확대 저지라는 차원에서 미국의 지원을 강조했다면 미국은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했을 것이고, 남한은 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열세 속에서 수립된 방어작전계획 또한 현재의 가용한 수 단들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계획이었다. 특히, 1949년 말과 1950년 초반에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판단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개 사단 중 3개 사단이 후방지역에 배치되어 병력의 집중과 후방 집결보유와 같은 적의 우세한 군사력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은 아니었다. 즉, 전력이 열세인 남한은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여 최대한 병력을 집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셋째, 지연전과 소모전 강요를 위한 전략이 수립되지 못했다. 북한의 전격전 전략에 대응하여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지연전과 소모전을 통해 상대방에게 많은 손실을 강요하는 소모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한의 작전계획은 이러한 지연전 및 소모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8개 사단 중 4개 사단만을 전방지역에 배치하여 서울 북방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후방지역의 사단들을 전쟁 발발 후 후방에서 집결, 북상하여 역습을 수행하도록 하였지만 이들 후방사단들이 집결 후 북상하여 한강 이북에서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은 북한의 단기전 전략에 대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이 1950년 4월까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sup>62)</sup>에서 토벌작전에 투입되었던 후방사단들에 대한 전방이동 조치가 고려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1950년 초에 북한의 남침 의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방지역 사단들의 실질적 임무였던

62) 김점곤, 『한국전쟁과 남로당전략』, 박영사, 1973, 83쪽.

토벌작전이 거의 마무리 되었다면 신속하게 해당 사단들을 복상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 5. 결 론

지금까지 군사전략과 전쟁억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6·25 전쟁 전 남북한의 군사전략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전략수립에 있어 '방어의 강함'과 '공격이 갖는 한계'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공자와 방자 모두 자신이 갖는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전략은 상호간의 적대적인 의지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자와 방자의 노력이 균형점을 이루면 전쟁은 억제될 수 있다. 전쟁개시의 필요 조건은 '승리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자에게 있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단기전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격전 전략이며 방자에게 있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공자에게 지연전을 통해 피해를 강요하는 소모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군사전략적 균형을 통해 전쟁은 억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6·25전쟁 전 남북한의 군사전략을 살펴보면 '방어의 강함'과 '공격이 갖는 한계'의 측면에서 북한은 방어의 강함을 무력화하고 공자의 강함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은 방어의 강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195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 '승리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이 전차를 이용해 2일 이내에 서울을 점령하고 주력을 격멸하는 전격전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작전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한 반면, 남한은 이러한 북한의 공격을 지연하고 소모전으로 이끌 수 있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전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즉, 1950년 6월 25일까지 남한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데 실패하였고, 이는 북한이 정치적 동기로 인해 계획한 남침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도록 결심하게 하는 중요한 군사적 측면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만약 남한의 방어계획이 후방의 4개 사단을 포함하여 북한의 공격에 대해 전투력을 보존하는 가운데 지연전 및 소모전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졌다면 전쟁은 억제되거나 그 양상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첫째, 북한의 공격을 어느 정도 지연하였다면,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를 유도하거나 보다 많은 지원 확보로 군사력 증강을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만약 북한이 남침을 개시했다라도 지연전 및 소모전을 통해 낙동강 전선보다 조기에 공세이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면 중공군이 개입할 타이밍을 뺏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2015년 전시 작전권 환수를 통해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하는 한국에게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첫째, 군사전략의 제요소인 목표-수단-방법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전략의 수립,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제과정이 일관성을 가짐으로서 그 군사전략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정보평가와 전략수립의 연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올바른 정보평가가 있더라도 전략수립과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셋째, 군사력이 열세인 국가는 항상 패배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군사력의 강약보다는 군사전략의 강약이 승패를 좌우한다.

(원고투고일 : 2012. 3. 29, 심사수정일 : 2012. 11. 27, 게재확정일 : 2012. 11. 30)

주제어 : 6·25전쟁, 남한, 북한, 군사전략, 전쟁억제

<ABSTRACT>

A Study on the Cause of Failure Deterrence and North  
Koreas' Invasion in the Korean War  
- Focused on North and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ies  
before the Korean War (1948 to 1950) -

Kim, Dae-sung

So far, causes of the Korean War have been mainly investigated both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and domestic politics. On the other hand, the aspects of military strategies been researched. As Carl Von Clausewitz said, 'War is a political means', causes of war should be discussed with political motives, but military strategic aspects are very important as well. It is difficult for a country to start a war without expecting 'possibility of victory', no matter how attractive a political motive seems.

Possibility of victory can be calculated through both sides' military strateg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asons why South Korea failed to deter North Korea's invasion from the perspective of military strategy. Thus, this study examines both the attacker's and defender's military strategic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s well as the correlation between military strategies and war deterrence.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wo Koreas' military buildup and military strategies before the Korean War, further analyzing the reasons why South Korea failed to repel North Korea's invasion from the point of military strategy.

When it comes to North Korea's military buildup and invasion plan between 1948 and 1950, North Korea had clear political and military objectives called 'Unification under Communism' and adopted a blitzkrieg strategy to attain its objectives in the shortest period, and its military buildup was good enough to execute its blitzkrieg strategy.

When it comes to South Korea's military buildup and defense plan, however, South Korea failed to establish an exact direction between its political and military objectives, which could be the defense against North Korea's invasion and restoration of North Korean territory and even failed to establish a defense plan based on an attrition strategy which was likely to cope with North Korea's blitzkrieg strategy most effectively. Moreover, South Korea didn't properly pursue military buildup because of several restrictions.

In conclusion, North Korea's possibility of victory became considerably higher from the point of military strategy in the early 1950s, which led to a circumstance that South Korea couldn't deter North Korea's invasion from a military strategic point of view as well as from the international political point of view.

Key Words : Korean War, South Korea, North Korea, Military strategy, War Deterrence